

■ 서평

능동적 역사 인식으로 바라본 문학사

—양영길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푸른사상)

김지연*

문학과 역사, 역사와 문학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시간에도 생산되고 흐르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현재가 의미 있는 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문학, 먼 훗날 다시 읽혀질 문학은 역사와의 관련이 깊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양영길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서

딱 꼬집어 정의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수석과 대화를 나누고, 사진기와 함께 산야를 누비는가 하면, 시와 시조를 쓴다는 것. 얼추 귀동냥만으로도 저자의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그것들 모두 애호가 수준의 경충 넘어서 있으며, 그러기에 꽤 산만할 듯도 싶지만 그는 태풍 전야처럼 평온하다. 대체 역동적이라는 의미와 정적이라는 의미가 공존할 수 있다는 말일까. 이러한 물음은 늘 그를 향해 열려 있다.

저자는 나의 여학교 시절 은사이기도 하다. 당시 그는 많은 학생들의 흠모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기이한 일이었다. 여학생의 눈으로 이해하기엔 지나치게 멀고 난해한 수석과 이력들이 그에게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 하나 존경과 흠모를 바치는 일에 지쳐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 하나 그가 갖고 있는 장구한 수식들이 그다지 비범한 것이란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었다.

내가 맨 처음 얻은 콤플렉스는 헤아릴 수 없는 포용의 너넉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상대방이 비집어 들어올 자리를 언제나 비워놓는다. 일천한 세상 모든 것들을 그 자신 일천한 자세로서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천하지 않음을 그는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 그는 일천하지 않은 참 드문 사람이다.

1. 능동적 역사 인식과 문학사

“ ‘문학사’와 ‘문학사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는 명사와 동사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는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사는 과정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문학사의 실체 속에서 숨쉬고 있는 ‘혼과 정신’에 대하여 ‘왜’가 아닌 ‘어떻게’에 알맞은 대답을 찾아 좀더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동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사 속에는 민족사가 약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전술한 인용처럼 ‘문학사를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곰곰 생각하기 전이라면 누구나 ‘문학사’와 ‘문학사 인식’이 무에 그리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취하기 십상이다. 더러는 그 두 가지 분류를 불필요하게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에 대한 숙고에서부터 운을 떼기 시작한다. 따라서 그는 지금까지의 방법론적 논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과 그에 따른 문학사 서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문학과 역사 인식〉, 제2부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서술 양상〉, 제3

부 〈일제 강점기 문학사 인식 방법〉, 제4부는 〈제주 4·3문학사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의 내용은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과 '제주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에 대한 연구이다. 제2부에서는 한국 근대문학사의 서술 양상을 살피고,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3부에서는 '김태준의 문학사 인식 방법', '임화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한국 근대문학사 구성 방법'의 논의가 이어지며, 4부는 '4·3 문학의 흐름과 과제', '통일 열망 시대의 4·3 문학'이라는 주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한다.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짐작할 수 있거니와 저자는 유별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문학 작품이나 어떠한 기록이나 사물 하나하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문명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들의 모든 것은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중략...) 그러므로 하나의 문학 작품은 독자들에게 정신적 차원의 호흡에 청량제가 될 수 있는 '역사의 지하수'를 퍼올릴 수 있게 씌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길재나 포은의 '忠臣不事二君'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거의 부재'한 작금의 현실을 통탄해한다. 즉, '충신불사이군'이란 명분론의 폐단은 우선 인재의 낭비와 정책의 단절, 그리고 정책 발전의 단선화 등의 폐단을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명분론 뒤에서는 후학과 인맥을 통한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당파를 조장하기도 했었음을 지적한다. 결국, 이 명분론에 내재해 있는 의미 속에는 섬기던 임금만 있을 뿐 백성들에 대한 추호의 고려도 없으며, 왕조 중심 사관을 근거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작품들 가령 김동인의 「감자」, 현진건의 「고향」,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 등의 작품들이 당시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안겨

주고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비판적 논의를 제기한다. 저자에 의하면 그것들은 그냥 사실주의니, 자연주의니, 순수문학이니 하는 식의 방법론적 문제에만 얽매어 역사적 인식 차원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더욱이 '주인공의 삶과 인격을 폄하하는 작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을 다루는 작품'들은 일제 강점 당시에 독자인 지식층과 민중들을 분리하는 데 여러 모로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그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해서도 일부러 철저하게 역사와 시대, 민족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비판한다. 그로서는 그 작품을 '시적 서정성'이니, '분위기'니 하며 칭송하는 문학 교육의 현장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련의 예시를 통해 실제 작품들에 대한 매질을 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저자는 그것들을 일러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창녀로서의 예술(art as courtesan)"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가 작품과 작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노와 열정이며, 분노와 열정 없이 유창한 기교와 치장만으로 가장한 일부 작가들의 영합적인 행태에 대해서 심한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이때 그가 요구하는 분노와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가 중요하게 취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역사관과 역사 인식이다. 그의 언급처럼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은 역사학의 영역만이 아니라 문학의 영역이기도 한 것이다.

2. 능동적 역사 인식과 지역 문학사

이러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제주 지역문학사와 4·3문학사에 대한 견해도 덧붙이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양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중앙 문단과 엘리트 중심 문학사 서술' 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문제의 극복 방안으로 저자는 중앙 문단 중심의 문학사

서술에 대한 극복은 여러 지역문학사 서술을 통하여 각 지역의 정서를 비롯한 문학사의 장기 지속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엘리트 중심의 문학사 서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학사나 통속문학사 등을 서술하여 문학사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고 부연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지역 문학사상과 대중문학사상이 확립되고, 지역문학사와 대중문학사, 통속문학사를 바탕으로 한국문학사상을 정립한다면 중앙 문단 중심의 문학사와 엘리트 중심의 문학사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고찰한다면 저자의 제주 지역문학사와 4·3문학사는 한국문학사 서술의 새 장을 여는 노력의 일환인 셈이다. 그는 지역의 특수성 있는 문학은 보편성보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같은 특수성의 가치는 그냥 우리들 앞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 인식에 의해서 지역 문학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특히 통일문학 시대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4·3 문학의 성과가 어떻게 자리매김될 것인가를 우려한 저자의 문학관은 예사롭지 않다. 그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일열망시대를 억압하는 것은 정서적 민중의 이기심과 우월성이다. 이 억압에 맞서서 정서적 민중의 물꼬를 통일 전선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은 정치나 경제로만은 안 된다. 이들을 진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문학의 힘이다. 통일열망의 시대에 정서적 민중의 도전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치나 경제의 위상보다 문학의 위상이 승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떻게 창조해 내느냐에 따라 통일은 소모적인 것이 될 수도 생산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저자의 독특한 논리를 따라 가다 보면, ‘광복은 도둑 맞았지만 통일은 철저한 준비로 도둑 맞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책 서두의 언급도 절실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저자는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하여 그 자신의 독창

적이고 뚜렷한 역사 인식을 토대로 문학사 인식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문학사 인식은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그 역사 인식의 저변에는 언제나 민중이 자리하고 있으며, 민중을 문학사에 옹계 반영하는 일이야말로 그가 추구하는 통일시대 문학사의 준비라고 할만 하다. 제주 지역문학, 특히 4·3문학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따지고 보면 그가 통일이라는 사회 지각 변동 속에 희생된 제주 민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 관계 깊다.

저자의 역사 인식은 이처럼 뿌리가 깊으며, 먼 미래의 통일시대까지를 아울러 포함한다. 이쯤되면 그의 오지랖 넓은 근성이 다시 회자되지 않을 수 없거니와, 그로 인하여 이 책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저간의 배경으로서 고마울 따름이다. 통시적인 고찰에 있어 그의 역사 인식이 확고하지 못했다면 연구 성과가 자칫 싱거운 자료로 치부될 위험도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통찰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성과물은 과거를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민중을 성황리에 끌어안을 수 있었다.

“문학사의 실체 속에서 ‘혼과 정신’에 대하여 ‘왜’가 아닌 ‘어떻게’에 알맞은 대답을 찾아 좀더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그가 ‘문학사 인식’이라고 하여 ‘문학사’와 굳이 구분하려 한 의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민중이 이뤄온 우리의 민족사가 문학사 속에 약동한다는 것, 민족사가 맘껏 약동하도록 문학사가들의 책임과 역량이 요구된다는 것, 그러므로 그에게서 쏘아 올려진 문학사 인식이 궁극적으로는 독자들을 통해 연쇄적으로 촉발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